

일반

오스트롬의 커먼즈 이론 관점*에서 들여다본 도시커먼즈의 재해석

커먼즈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A Reinterpretation of Urban Commons from the Perspective of Ostrom's
commons Theory: Focusing on the Commons Components

안명희**.이태화***

커먼즈는 공통의 유·무형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을 만드는 실천적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롬과 다른 연구자들이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커먼즈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커먼즈에 적용되는 커먼즈의 보편성과 도시적 맥락의 특수성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도시커먼즈 이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커먼즈의 구성요소인 자원, 공동체, 제도(communing)를 중심으로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커먼즈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가 '사적 소유권과 그 이외 관계'로 설명되었던 점,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인 반면 도시커먼즈는 개방적이라고 통용되는 점, 그리고 커먼즈 공동체에 대한 통념에 대해 다루었다. 자원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적 소유권에 경도된 개념적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공통자원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공공성을 조명함으로써 공통자원의 의미를 새

* 오스트롬의 공통자원관리를 위한 디자인 원리는 삼림, 어장, 방목지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커먼즈 이론가 중에는 도시커먼즈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를 '전통적 커먼즈'로 구분하기도 한다(Parker & Johansson, 2012). 이 글에서도 천연자원과 같은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편의상 구분을 위하여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를 '전통적 커먼즈'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수료(farandl@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thlee21@uos.ac.kr).



롭게 해석하였다. 커먼즈 이론에서 폐쇄성 근거로 거론되는 '경계'는 자원 사용에 대한 배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원 사용자의 범위, 즉 공통자원에 대한 자기조직화와 자치가 실행되는 범위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먼즈 공동체는 동일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무리가 아니라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자원 사용자 간의 교류, 학습을 통한 호혜적 관계와 신뢰 구축의 공간이며 자치규범이 작동되는 영역임을 제시한다. 덧붙여 도시커먼즈를 도시의 맥락적 특성(집합성, 다양성, 복합성, 연결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도시커먼즈는 전통적 커먼즈와 달리 도시 거주자의 일상의 삶과 도시 자체가 커먼즈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각 도시 커먼즈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이지도 내포된 관리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어 유기적 연결망의 일부가 된다. 향후, 자본주의에 포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도시커먼즈 발화를 위한 실천방안과 도시커먼즈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도시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도시커먼즈, 공통자원, 공동체, 제도(커머닝), 자치

1. 머리말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누리는 풍요와 끝없는 소비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초래했으며(클라인, 2016; Caggiano & Landau, 2021), 이러한 도전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일부 영향은 비가역적일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Byrne, Taminiau & Nyangon, 2022; IPCC, 2022). 학자들은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으며, 무한경쟁이 낳은 발전주의적 세계관과 경제성장을 그 원인으로 진단한다(도슨, 2021; 맥마이클, 2013; 클라인, 2016; Borràs, 2019).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와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오랜 인류의 과제임에 비해 기후위기는 인류가 봉착한 비교적 최근의, 그러나 가장 급박한 공통의 문제이다(월재스퍼, 2013). 이 양자는 두 갈래의 나선 구조로 서로가 서로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을 착취한다는 동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양상은 인류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이자, 가장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장소인 도시(United Nations, 2019)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적 도시는 지구적 자원과 노동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위계적 구조의 정점에 있다(Harvey, 2008: 24). 도시의 이러한 특징은 자본주의 발전의 자양분이 됨과 동시에 도시 거주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과 인공 자원의 전 영역에서 사유화와 상품화를 확산시키고 도시 거주자들의 삶을 더욱 불평등한 구조로 고착시켜 양극화를 초래하였다(하비, 2014, 김용창, 2015: 439에서 재인용).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자본화와 지구 자원의 부양 능력 한계에 대한 인지 불능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는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홍수, 가뭄, 폭염, 치명적인 전염병 등으로 가장 파괴적인 기후 혼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도슨, 2021: 379~380).

이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적 사유화와 무한경쟁에 기반을 둔 성장주의 전략의 대안으로 커먼즈(communs)¹⁾라는 오래된 해법이 새로운 경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처한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극단적 불평등과 환경위기에 대한 담론으로 커먼즈가 호출되는 이유는, 하나뿐인 공동자원으로서의 유한한 지구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공동자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다(맥마이클, 2013). 그리고 무엇보다 커먼즈가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생존을 위한 자원 사용 문제에 형평성을 담보하는 자치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네그리-하트, 2014; 바우웬스·코스타키스, 2018; 볼리어, 2015; 카프라·마테이, 2019; Caffentzis &

1) 커먼즈(communs)는 공동자원(최현·정영신·김자경, 2014), 공유재(박현주, 2013), 공유(재)(배수현, 2015), 공유지(윤홍근·안도경, 2010; 정남영, 2012), 공동재(정남영, 2012)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되었다(이 각주에서 괄호 안의 이름은 해당 도서의 번역자들을 가리킨다). Commons를 객체화된 외부 자원의 개념으로 한정시키는 경우는 공동자원, 공유재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commons를 비배제적인 공동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자치규율을 규범으로 하는 복합적 체제로 정의하는 경우는 공유(재) 또는 '공동재'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 저서 내에서도 의미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같은 commons를 공유지, 공동재 등으로 맥락에 따라 달리 번역하기도 한다(정남영, 2012). 커먼즈는 오랜 인류 역사의 개별적 시·공간 속에 스며들어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오역을 피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음가를 그대로 살려서 '커먼즈'로 사용한다

Federici, 2014). 같은 이유로 도시 거주자가 처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삶의 방식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 체제로 도시커먼즈가 요구되고 있다(De Angelis & Stavrides, 2010; Kip et al., 2015). 커먼즈가 제시하는 자원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은 새로운 삶의 공간과 방식으로서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 이론의 적용과 도시적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도시커먼즈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제시한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적 맥락에서의 도시적 특성이 적용된 커먼즈를 재해석함으로써 도시커먼즈의 실천과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통적 커먼즈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 연구성과의 유용함을 도시커먼즈에서 재확인함으로써 도시커먼즈 이론을 보다 심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 전통적 커먼즈의 역사와 정의를 살펴보고, 도시커먼즈 연구를 통하여 도시적 맥락에서 커먼즈 이론 적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훑아봄으로써 도시커먼즈에서 논의되어야 할 이론적 쟁점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커먼즈의 구성요소별 함의와 특징을 추려냄으로써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맥락적 환경이 생성하는 차별성과 커먼즈의 보편적 이론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진행한 커먼즈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커먼즈 쟁점을 정리하고 도시커먼즈를 재해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도시가 처한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도시커먼즈 실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2. 커먼즈에서 도시커먼즈로의 논의 경로: 역사, 개념 및 이론적 쟁점

1) 커먼즈의 역사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에 따르면 13세기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자유 대헌장)와 살림현장에서 평민(commoner)²⁾들이 쟁취한 자원은 자유권, 재산권, 생계자급(subsistence) 권리인 ‘공통권(common right)³⁾’과 관련이 있다(라인보우, 2012).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원과 맺는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커먼즈는 마을 숲, 하천, 우물 등의 자연 자원과 그 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조선의 송계(松契), 일본의 이리아이(入會)(김영희, 2020; 정영신, 2016), 1186년 이전의 러시아 미르(mir)공동체(Netting, 1976), 옛 독일의 알멘데(allmende)와 같은 자치공동체(Scherhorn, 2012)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정치·사법적 권리가 성립하였던 커먼즈는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본주의를 촉발시킨 인클로저(enclosure)와 함께 파괴되기 시작했다. 커먼즈는 18~19세기에 이르면 제2차 인클로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또는 자유로워진) 대상화된 자원으로 훼손되고 축소되었다(김영희, 2018; 김용창, 2015; 라인보우, 2012; 하비, 2014).

이와 같은 커먼즈는 근대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등장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의 사유화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커먼즈 운동(이병천, 2018; 정영신, 2020; 카프라·마테이,

2) Commoner는 commoning의 주체로서 중세에는 토지를 공유하는 평민을 의미했지만, 근대 이후 도시커먼즈에서는 시민을 지칭한다. 개념적으로는 경제적·정치적·사법적 권리를 가진 자치(self-governance)의 주체인 자유로운 시민을 의미한다(라인보우, 2012). 이 논문에서는 커먼즈 구성의 주체로 언급될 경우, ‘커머너’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3) Common에 대한 우리말 번역은 앞선 언급(각주 1)과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공동, 공유, 공통 등의 용어로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커먼즈와 연결된 단어 번역의 경우, 네그리·하트의 『공통제』(2014)를 번역한 정남영의 번역 ‘공통’을 따랐다.

2019), 네그리(Negri)와 하트(Hardt)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자율주의(Autonomia) 운동(네그리·하트, 2014)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스쿼트(Squat) 운동(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한운애, 2016), 도시 독립공간(Urban independent spaces) 운동(Bresnihan & Byrne, 2015)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운동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총유⁴⁾ 규정, 특수 지역권 등으로 표현되는 공동자원 관리의 예외적 형태⁵⁾도 식민지 근대화의 격변에도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소유권과 구분한 수익권과 이용권⁶⁾의 명목으로도 존속했다. 이렇게 커먼즈는 근대 이후 극단적인 사유화를 위한 인클로저 과정에서도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소멸되었던 적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재등장하거나 생산되고 있다(볼리어, 2015; Caffentzis, 2012; Caffentzis & Federici, 2014; Harvey, 2011).⁷⁾

-
- 4) 총유(민법 제275조 제1항)는 다수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를 말하는데, 물건에 대한 개별 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커먼즈 관점에서 총유제는 자연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집합적 관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삶을 유기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 등의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박태현·이병천, 2017).
 - 5) 특수 지역권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지역 내지 영역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본 민법의 입회권, 독일 게르만법상 토지 수익권의 총유, 영미 보통법상 커먼즈 등이 있다(김영희, 2020).
 - 6) 근대국가는 영토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영토 내 사적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공동이용의 숲, 목초지 등) 사적 소유가 곤란한 자원들(국립공원, 전파, 대기 등)을 모두 국유화함으로써 처분권만 소유하거나, 신탁받는 행위 등의 주제로 나서게 된다(정영신, 2017; 2020). 이 중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하되 이용권은 공동체 권리로 인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자원이 한국의 어업권이다.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등에서는 어업계의 총유 규정과 해녀들의 수자원 채취에 대한 수익권과 이용권을 인정하였다(김영희, 2020; 정영신, 2020).
 - 7) 조지 카펜치스(George Caffentzis) 등은 커먼즈를 자본주의적 축적과 심화에 활용되고 있는 친자본주의적 커먼즈와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하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커먼즈로 구분하였다(Caffentzis, 2012; Caffentzis & Federici, 2014).

2) 커먼즈 이론 정립과 도시커먼즈 적용의 어려움

커먼즈에 대한 개념은 1968년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발표한 논문("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목동의 우화가 제기한 — 한 행위자가 얻은 이익이 다른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 집합적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되었다(오스트롬, 201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딘의 이론은 커먼즈에 대한 인클로저와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었다(MacLellan, 2016). 이에 대한 반론과 커먼즈 개념의 이론적 정립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공통자원에 대한 관리, 혹은 공통 가치(common value)⁸⁾에 대한 논의가 인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인류학적 지역공동체 연구(우자와 히로후미, 2019; 이노우에 마코토, 2014; Netting, 1976), 커먼즈 자원(common resources)⁹⁾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오스트롬, 2010),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자유주의적 커먼즈 운동(바우웬스·코스타키스, 2018; 볼리어, 2015), 그리고 자본주의와 국가에 대항하는 대안 체제로서 커먼즈 이론(네그리·하트, 2014; 카프라·마테이, 2019; Caffentzis,

8) 여기서 공통의 가치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일체화된, 동일한 가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에 모인 미국 전역의 2000만 명의 시민의 구호(common value를 포함하는 구호)에서처럼 지구라는 공통자원에 대한 사용과 훼손에 대한 집합적 문제를 의미한다.

9) 정영신(2014; 2016; 2020)은 그동안 한국학계에서 commons와 엘리너 오스트롬의 CPR(Common-Pool Resource) 번역과 관련하여 공유지, 공유재, 공유 자원(공동 소유 자원)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관행을 비판하면서 commons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번역어를 제안하였고, CPR은 공유(公有)라는 소유권의 의미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자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공동자원'이나 '공용(共用)자원'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스트롬과 그의 동료들이 예시로 들고 있는 여러 사례는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으며(오스트롬(2010: 125~127)은 스위스와 일본의 공동체 소유 사례로서 CPR 디자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 모든 CPR과 관련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단일 유형의 재산제도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Ostrom et al., 1999: 278~279) 소유권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원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이 글은 오스트롬의 CPR 디자인 원리 등을 커먼즈 운영 원리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커먼즈 구성요소로서 자원을 의미할 경우, 커먼즈 자원(resources)으로 통합하여 표기하였다.

2012; Caffentzis & Federici, 2014; De Angelis & Stavrides, 2010; Harvey, 2011; Mattei, 2012) 등으로 발전했다.

특히, 오스트롬은 커먼즈 자원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근대화된 커먼즈’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였다(오스트롬, 2010). 오스트롬 등이 개발한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원리는 커먼즈가 존속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커먼즈의 보편적 형태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오스트롬, 2010; Ostrom et al., 1999). 따라서 일반적인 커먼즈 개념은 특정한 형태를 띠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을 만드는 실천적 과정(commoning)¹⁰⁾이라고 할 수 있다(라인보우, 2012; 블리어, 2015; De Angelis & Stavrides, 2010; Kip et al., 2015). 즉, 커먼즈는 구성요소 — 자원, 공동체, 제도(commoning) — 간의 상호작용과 커먼즈가 놓여 있는 사회의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도시커먼즈의 이해와 이론화는 커먼즈 이론을 도출한 천연자원 기반의 농·어·산촌 환경과는 달리 자본주의에 “포화(saturation)”되고(Huron, 2015: 968), 국가주의에 둘러싸인(De Angelis & Stavrides, 2010) 세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도시커먼즈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 커먼즈 연구의 성과와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를 동시에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도시커먼즈의 면모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오늘날 일부 도시커먼즈 연구는 전통적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차이를 강조하거나(Foster & Iaione, 2016; Huron, 2017; Kip et al., 2015; Susser & Tonnelat, 2013), 전통적 자원 기반 커먼즈와 전혀 다른 생경한 체제로 이해함으로써 커먼즈 이론을 이원화하고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 이론을 화석화(박인권·김진연·신지연, 2019; 정영신,

10) 라인보우는 커머너들이 실천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커머닝(commoning)”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고(Linebaugh, 2012[2008]), De Angelis & Stavrides(2010), Kip et al.(2015)은 커머닝과 제도를 등치시켜 커먼즈의 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2016; 2020; 스가 유타카, 2014)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커먼즈 이론 논의에 있어 각 커먼즈에서 공통으로 제기되거나 차별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은 — 각 커먼즈를 둘러싼 역사적·환경적 맥락적 특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 커먼즈 이론의 근간이 되는 일관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전통적 커먼즈를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맥락적 차이를 구별해 내는 과정에서 커먼즈 개념의 윤곽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에서 동일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커먼즈 자원 이용과 소유권 간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를 지나면서 사적 소유권에 경도된 시각으로 커먼즈 자원 이용을 이해함에 따라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 모두에서 커먼즈 자원을 소유권과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소유권과 대척 관계에 있다거나(황진태, 2016), 커먼즈 자원이 공동소유권과 유사하다거나(정영신, 2020), 도시커먼즈에 이르면 도시가 생성하는 가치를 토지 지대로 한정시키는 경향마저 있다(최명식, 2022).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에서 드러나는 커먼즈 자원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사적 소유권과 그 외의 관계'라는 대립적 시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 중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형성된 상품화된 자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조원희, 2011; 카프라-마테이, 2019).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원과 맺는 관계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사적 소유권은 그 가운데 한 가지 방식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는 커먼즈 자원의 관계적 속성은 사적 소유권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커먼즈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

두 번째,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에서 거론되는 차별적 요소는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인 반면, 도시커먼즈는 개방적이라는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비도시지역(농·어·산촌)의 대비는 인구의 집중과 중심성으로 구분되지만, 도시는 본래 신분제와 봉건영주의 억압과 예측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했고(도슨, 2021: 391~392), 근대 이후의 도시는 편의성과 번영 그리고 공동

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부도덕, 무질서, 일탈의 장소로 여겨짐과 동시에 열린 공간으로 비도시지역과 차별화되었다(영, 2017: 499~501).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 달리, 이 글에서는 단순히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각 커먼즈의 본질적 속성을 달리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즉,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공간을 구성하는 환경과 사람 간의 관계이며, 그것이 커먼즈라는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 가는 실천 과정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각 커먼즈의 개별적 특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커먼즈의 경계와 관련된 커먼즈의 폐쇄성과 개방성은 공간의 차별적 성격이 아니라 커먼즈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이후에 전통적 자원을 기반으로 구성된 커먼즈 또는 도시적 맥락에서 생성되는 도시커먼즈에서 커먼즈는 개방성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세 번째, 커먼즈 공동체(community)의 성격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나누는, 또는 타자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해하거나(한경애, 2022: 31~36),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만으로 커먼즈의 한 종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윤여일, 2022: 53). 또한, 도시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커먼즈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Huron, 2017; Kip et al., 2015).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공동체의 개념을 그대로 커먼즈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공동체 개념의 혼란이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혼동을 제공하였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커먼즈 공동체 구성의 요건으로서의 공통자원과의 관계, 집합적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자기 조직화와 행위의 장이 제공하는 차별적 특성,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커먼즈 공동체의 개념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커먼즈 이론의 보편적 원리를 비도시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와 자본화된 도시지역의 특이성으로부터 가려내고자 한다. 즉, 커먼즈의 보편적 원리를 시·공간적 특수성으로부터 분리해냄으로써 도시커먼즈에 적용되고 있는 커먼즈의 보편적 원리를 훑어보고 도시커먼즈를 도

시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 커먼즈 연구가 전통적 커먼즈의 실증적·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성립하였으며, 전통적 커먼즈가 오랜 세월 동안 자원 사용의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여 온 것과 같이 도시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도시커먼즈가 제안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절에서 커먼즈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자원, 공동체, 제도(communing)를 중심으로 커먼즈의 보편적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저로 구성된 도시커먼즈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커먼즈 구성요소로 살펴본 커먼즈 쟁점의 재해석

1) 자원

(1) 커먼즈 자원은 자원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 규정된다

재화의 내재적 속성에 따른 분류 기준은 195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뮤엘슨(Paul A. Samuelson)과 리처드 머스그레이브(Richard Musgrave)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권범철, 2020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엘리너 오스트롬과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A. Ostrom)이 배제성과 감소성을 기준으로 하는 4종류¹¹⁾의 분류 도식을 제시하였다(De Angelis, 2017). 이들이 재화의 객관적인 속성을 특성화하여 구분한 것과는 달리 1965년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제임스 맥그릴 뷰캐넌(James McGill Buchanan)은 재산권의 구조가 가변적이라면,¹²⁾ 물리적 속성으로 인해 서비스가 배타적이지 않은 재화는 없다고

11) 자원의 배제성과 감소성을 기준으로 사적 재화(private goods), 클럽재(club goods), 공동자원(common goods), 그리고 공공재(public goods)로 구분하였다.

12) 재산권은 본래 문화마다 다르고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시기별, 공간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근대국가의 후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 내 사적 소유권은 소유권의 형태를 이분화함으로써 선점된 사적 소유와 선점되지 않은 소유 가능한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힘이 권리를 만든다는 보편

주장한다(Helfrich, 2014에서 재인용). 목초지, 수자원, 어장 등과 같은 천연자원을 커먼즈 자원으로 여기게 된 것은 자원의 속성이 비배제성이나 감소성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정치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관리규칙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e Angelis & Stavrides, 2010). 많은 커먼즈 연구자들도 재화의 분류 중 커먼즈 자원은 속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과정이며 사회적 관계로 규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인보우, 2012; 블리어, 2015; 정영신, 2014; 최현, 2013; Caffentzis, 2012; De Angelis, 2017; De Angelis & Stavrides, 2010; Kip et al., 2015). 즉, 커먼즈 자원은 자원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들(공동체)이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커먼즈 체계의 기반이며, 단순히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의 재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2) 커먼즈 자원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성된다

실케 헬프리치(Silke Helfrich, 2014)는 커먼즈 자원이 되는 것은 자원의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자원을 우리가 커먼즈 자원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커먼즈 자원으로 성립할 것인가의 여부는 공동체의 필요와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도시커먼즈에서도 커먼즈 자원은 도시 거주자의 필요로 만들어진다. 도시는 고정된 주거지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만남의 장소로 출발했지만(멈포드, 2016: 14), 오늘날 대도시 권역의 규모와 인구밀도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풍부한 다양성과 가능성, 편의와 안전 그리고 흥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산이 되었다(제이콥스, 2010: 285~290).¹³⁾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적 '자연법'을 등장시켰다(카프라-마테이, 2019).

13)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도시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도시가 제공하는 편의성과 풍요로움의 일종이며(글레이저, 2011), 도시 자체가 생산하는 지대라고 할 수 있다(Howard, 1965[1898], Kornberger & Borch, 2015: 7에서 재인용).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도 도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부의 원천이자 부의 생산 수단이며 삶의 근간이 되는 커먼즈¹⁴⁾라고 하였으며, 자본주의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외부효과라고 주장한다(네그리·하트, 2014: 226~231).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도시의 밀도(density), 거주자의 근접성(proximity), 사용자의 다양성(diversity) 등의 맥락에서 도시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도시 자체가 도시커먼즈 자원이 된다(Foster & Iaione, 2016; Huron, 2015; Kip et al., 2015; Kornberger & Borch, 2015; Kratzwald, 2015; Susser & Tonnelat, 2013). 이와 같은 도시 거주자들의 일상 활동(노동, 놀이, 휴식, 친교)이 생성하는 가치는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되는 지식, 즐거움, 일자리, 신뢰 등의 편익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도시커먼즈를 구축함과 동시에 또다시 커먼너를 유입시킴으로써 도시커먼즈를 재생산하고 확산한다(Foster & Iaione, 2016: 297).

다른 한편, 근대 이후 산업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타나는 각종 도시 운동이나 도시권에 대한 권리투쟁과 같이 도시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위기 인식은 도시커먼즈 생성의 기제가 되었다(Kratzwald, 2015). 도시커먼즈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집합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생계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이다(Feinberg et al., 2021: 6~7). 도시가 자본에 포화될수록 주택, 의료, 교육, 복지, 물, 돌봄 등 도시 거주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들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가속될수록(하비, 2014, 김용창, 2015: 439에서 재인용), 도시 거주자들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존의 방편으로 도시커먼즈를 구성하거나 재생산하는 동력을 얻는다(Feinberg et al.,

14)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the commons)'가 전(前)자본주의적 공유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였지만(Hardt & Negri, 2004: xv, Huron, 2015: 15에서 재인용), 커먼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현재에도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Huron, 2015). 이 글에서는 휴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그리와 하트의 사상을 언급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the common'을 '커먼즈'로 사용하였다. 'the common'의 우리말 번역 '공통적인 것'은 정남영(2014)의 번역을 따랐다.

2021: 7~13; Parker & Johansson, 2012: 10~11). 휴론이 제시하는 사례와 같이 워싱턴 D.C.의 지분 제한 협동조합(Limited-equity cooperatives: LEC)의 거주자들은 치열한 자본주의 도시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 낯선 사람들과 협력하고, 집합적 활동을 통해 상품화된 자원인 거주공간에 대한 집합적 권리를 회복하였다(Huron, 2015: 7).

이 외에도 대기, 해양, 생물다양성과 같은 대자연도 더는 무한하지 않으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수에게 전유되었다(백마이클, 2013: 322~325)는 인식으로 인해 지구적 커먼즈 자원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Ostrom et al., 1999). 이러한 자원에 대한 인식은 인류 종이 '단 하나의 지구'인 생물권(Biosphere)의 부분이라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대응임과 동시에 한 번도 커먼즈에 포함되지 않았던 천연자원들로 커먼즈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된 인터넷과 소프트 콘텐츠 등과 같은 지식 자산의 영역에서도 사유화와 상품화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되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s, CCL),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s, GPL), P2P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s, PPL)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커먼즈의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케 했다(바우웬스·코스타키스, 2018: 90~91). GNU¹⁵⁾ 혹은 리눅스와 같은 동료 생산(peer production) 커먼즈는 공동체(사용자, 관리자, 생산자, 공급자)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고 유지되며 공동체가 정의한 규칙에 따라 재생산되는 새로운 커먼즈의 유형을 보여준다. 공동체 구성원인 참여자는 동료(peer) 개념으로서 아무도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협력을 위한 적합한 규칙과 조직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평등한 주체들이다(Siefkes, 2012). 이와 같이 커먼즈 자원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맥락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

15) GNU(GNU's Not Unix)는 유닉스(Unix)의 상업적 확산에 반발하여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과 그의 팀이 무료로 개발·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호환 운영 체제이며, 동시에 그러한 정보 공유 프로젝트 그 자체를 의미한다(Siefkes, 2012).

나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생겨난 자원들을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규칙을 생성함으로써 생겨났다.

(3) 커먼즈 자원은 사적 소유권과 달리 '공통적인 것'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인간과 재화(자연물 혹은 인공물 모두 포함)의 관계를 규정한 많은 제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대 이후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적 소유권에 대해 개관함으로써 커먼즈 자원이 내포하는 사회적 관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성립한 사유재산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원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로서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실행하는 주체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다(이병천, 2018). 존 로크(John Locke)는 자연이 제공한 자원(공유물)에 개인이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타인의 공통된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권능이 발생한다는 사적 소유권 개념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로크, 1996 [1689]: 35). 이후 자원에 대한 일련의 권리를 소유자에게 배타적으로 수렴시키는 제도로 성립한 사유재산 제도는 이전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이용 혹은 중층적 권리관계에 내포된 거래 비용을 소멸시킴으로써 자원의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볼리어, 2015; Helfrich, 2012). 이러한 상품화가 사회적 관계에서 내포하는 바는, 소수의 인구가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독점적 전횡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극단적 채취주의를 허용함으로써 자원 고갈과 공동체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클라인, 2016). 요약하자면, 사적 소유권은 국가라는 정체(政體)로부터 부여받은 대항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원을 상품으로 도구화하고 대상화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존재했던 자원에 대한 집합적 관계를 해체했다.

반면 커먼즈 자원은 사적 소유권 개념 출현 이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기반으로 구성원 각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제도적 기반(Macpherson, 1973: 136~140, 이병천, 2018: 251에서 재인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기, 물, 바람, 미생물, 수많은 생물종, 아름다운 풍경, 언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배려나 위로 등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자원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권리이며(로크, 1996[1689]: 30~35), 18세기 구성된 법체계에서 자원 분배에 대한 사항이 공법상 시혜로 규정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몫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다(Mattei, 2012). 마그나카르타의 핵심은 커먼즈 자원에 대한 권리를 왕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왕이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Kratzwald, 2015: 29). 하물며 도시커먼즈 자원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집합적 자원이며(De Angelis & Stavrides, 2010; Huron, 2015; Kip et al., 2015), 도시 거주자와 도시 자체가 자원이 되므로 도시를 구성하는 누구도 배제될 수 없다(Kornberger & Borch, 2015). 즉, 커먼즈 자원에 대한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며, 집합적 자원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집합적 관리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커먼즈 자원은 소수의 인구가 강제력으로 탈취하는 전리품이나 다른 구성원을 배제함으로써 생겨나는 소유권이나 거래 가능한 상품과는 구분된다.

전통적 커먼즈 자원이 소유권 유무와 관련 없이 커머너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였던 것(라인보우, 2012[2008])과 마찬가지로 도시커먼즈 자원도 시장주의적 기반 위에 구성된 사적(private) 또는 공적(public) 영역 모두에서 조성되고 있다(Susser & Tonnelat, 2013: 107). 도시커먼즈 자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커먼즈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모든 재산권 묶음에서 공존한다(Feinberg et al., 2021: 3).¹⁶⁾ 이와 같은 커먼즈 자원이 포괄적 사회적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이유는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포획할 수 없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¹⁷⁾이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가 봉건시대

16) 오픈 액세스 체제(open-access regime), 국가 소유 체제(state property regime), 공통 소유 체제(common property regime), 사유재산 체제(private-property regime) 등의 다양한 재산권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다양한 지위(소유자, 소유권자, 청구인, 허가된 사용자, 승인된 참가자)와 이들에게 가능한 권리(접근, 철회, 사용 제한, 처분권)로 분산된다(Colding et al., 2013, Feinberg et al., 2021: 3에서 재인용).

17) 이 글에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은 한국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공성(公共性)의 개념과

에 수행했던 기능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했고, 자원의 남용을 방지했다(Kratzwald, 2015: 31). 근대국가 성립 이후 커먼즈를 대체하는 유럽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로서 ‘국가(national)’ 또는 ‘정부(governmental)’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또는 법적인 생존권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포용했다(Kratzwald, 2015: 31~33). 이때 국가가 추구했던 ‘공적인 것(the public)’¹⁸⁾은 집합적인 자원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이 유무형의 관리를 행사하고,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즉 커먼즈 관점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공통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커먼즈 자원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과 자원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상품화된 자원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배분을 담보하는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속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수단이다.

2) 공동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이토 준이치(2018)는 공공성의 개념을 국가가 법이나 정책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공적인(official) 것과 구분하며,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open)고 개념화하였다. 즉, 공공성(公共性)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평등하며 민주적 통제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18) Carffentzis & Federici(2014)는 커먼즈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국가의 공적인 것(the public)을 구분하고 있으며, 공적인 것의 공통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과제로 삼고 있다. 법학자 Carol Rose(1994)는 공공재와 커먼즈를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공유재산(public property)을 구분하면서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용재산(public property)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우월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 전체가 보유하는 “집합적 공공재산(public property collectively)”을 구분한다(Huron, 2017: 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public”은 특정 계급을 대변하는 주류사회의 이익에 복무한다(국가)는 의미와 사회구성원 모두(다중)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가와 커먼즈의 관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봉건사회에서는 커먼즈의 약탈자였으며(라인보우, 2012), 근대화 시기에는 커먼즈 해체 조력자일 뿐 아니라 스스로 커먼즈를 점령하는 집단이었다(네그리·하트, 2014).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지구적 자원과 커먼즈 자원에 대한 수탁자(볼리어, 2015), 다중심적 커먼즈의 조정자(Ostrom, 2000), 그리고 시민사회와 파트너십(바우웬스·코스타키스, 2018)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다.

(1) 커먼즈 공동체는 커먼즈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커먼즈 공동체는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는 집합체로서의 공동체와 구별된다. 또는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고도 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대한 비판으로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 미덕(virtue)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共同體主義)와 같은 정치사상(샌델, 2008)과도 결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체의 의미는 도덕적·문화적 관습, 종교적 가치 등 공동의 신념을 구성원들이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는 영역임에 비하여 커먼즈 공동체는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집합적 단위를 의미한다(오스트롬, 2010; Caffentzis & Federici, 2014; De Angelis & Stavrides, 2010). 궁극적으로 커먼즈 자원의 형성과 재생산은 이에 상응하는 커먼즈의 집합적 활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커먼즈 공동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공통자원과 관련된 집합적 주체(collective subjects)가 자원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self-governance)을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커먼즈 공동체는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커먼즈 자원과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도시커먼즈가 도시 거주자의 일상과 행위의 집합성, 연결성, 밀도에서 비롯된 집합적 자원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근대사회에서 시민권의 개념은 사회계약(Social Pact)이론에 의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된 주권자의 지위(Feinberg et al., 2021: 13에서 재인용)로 설명되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각 제후들이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받게 되는 국민국가 영토 형성과 더불어 근대국가 국민으로 부여된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권리였다(강현수, 2021: 106).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이 도시가 자본과 노동이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편의와 혜택에 대한 분배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¹⁹⁾로 확대되었다(르페브르, 2011, 강현수, 2021: 121~130에서 재인용; Susser & Tonnelat, 2013). 전자의 '시민권'은 국가 또는 도시의 지배를 위한 법과 제도에 종속된 권리로서 추상적 권

리일 뿐 구성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지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 혹은 도시 거주자의 일상은 그 자체로 커먼즈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도시 거주자를 도시커먼즈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직접적인 매개체가 된다. 도시 커먼즈에서 도시자원을 매개로 하는 커머닝은 시민권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이며 도시민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다. 따라서 도시커먼즈에서 커머너가 주장할 수 있는 도시권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또는 인권적 명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커먼즈 공동체는 열려 있다

국내외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먼즈 자원(CPR)이 공동체 내 일부 다중이 전유하는 특별한 형태의 자원이며, 그 성격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공동소유권, 즉 사유재산에 가깝다²⁰⁾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일부 전통적 커먼즈 연구자들은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이며, 그 근거를 자원사용 배제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전통적 커먼즈 이론의 배경이 된 촌락 공동체는 커먼즈 자원과 자원 사용자인 커먼즈 공동체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였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폐쇄적 사회를

19)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강현수, 2021). 첫째, 도시 거주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공동으로 만들어 온 도시에 관한 ‘작품으로서의 도시와 작품에 대한 권리’, 둘째, 사적 소유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 보다는 사용가치와 관련되는 ‘전유의 권리’, 셋째,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 공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 넷째, 도시인이 도심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관한 ‘도시 중심부에 대한 권리’, 다섯째, ‘차이의 권리와 정보의 권리’를 포함한다(강현수, 2021: 29~35).

20) 제주도 마을 공동 목장 및 바다 자원에 대한 해녀와 스킨스쿠버들의 갈등 사례(정영신, 2020),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운동 사례(박인권·김진언·신지연, 2019), 일본의 대표적 공동자원 관리 방식인 ‘입회(入會: 이리아이)’ 사례(스가 유타카, 2014), Elinor Ostrom 등(1990)이 제시한 스위스와 일본의 숲, 필리핀과 스페인의 고대 관개 시스템 등 사례(Araral, 2014)가 여기에 해당한다.

배경으로 한 경우가 다수였다는 사실이다. 커먼즈 사례 연구의 특수성상 역사적으로 내재화된 문화적·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 공동체가 폐쇄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은 공동체 간 교류가 드물고 자족적인 사회에서의 폐쇄적이라는 개념은 공동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자원사용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통적 커먼즈 이론에서 의미하는 폐쇄성의 의미는 자원사용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정확하게는 공동체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는 커먼즈 자원의 경계는 “커먼즈 자원을 공유하는”(De Angelis & Stavrides, 2010: 2) 대상자의 범위가 곧 공동체의 경계라는 것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커먼즈 자원과 공동체에서 ‘경계’의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제1원리 ‘명확히 정의된 경계’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경계’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① “공유자원 체계로부터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인과 가계를 명확히 정의할 것”, ②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를 정의할 것”, ③ “공동체 내부인에 대해서도 자원 사용 제한 및 자원에 대한 의무 규칙 준수”(오스트롬, 2010: 173~176). 이때, 오스트롬이 제시하는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제1원리인 ‘엄격한 경계’가 의미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의 배타적 전유(appropriate) 권리에 대한 것 — 즉 내·외부를 구분하여 외부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정영신, 2016) — 이 아니라, 공통의 관리단위 자원 사용자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사용자(내부자)에게 자원남용 방지의 책임을 부여하고, 공동체가 생산한 편익과 지대의 공정한 배분과 보존의무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같은 책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수많은 작은 공동체의 공통점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선출하고, 제도를 보호함으로써 자원을 보존하는 것”(오스트롬, 2010: 160)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이 공통자원의 관리에 있음을 주지할 때, 자원과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강조는 외부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내부자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자치’영역을 구획하기 위한 개념이다. 정리하자면, 오스트롬이 제시하는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제1원리에서의 ‘경계’는 공동체의 “자율적

자치(self-organized, and self-governed)”(오스트롬, 2010: 119~193)를 위한 이용자 확인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커먼즈 기반 공동체가 여타의 폐쇄적 공동체와 구분되는 지점은 개인의 이익(self-interest), 공통 이익(common interests) 추구 관점에서 처음부터 외부자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주의, 빗장 공동체, 혹은 전근대 사회의 부족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명백해진다. 폐쇄적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인클로저를 통한 사유화 모델이며, 이를 통하여 개인들이 구매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고가의 상품화된 자원을 내부자 간 공유하는 형태 등으로 볼 수 있다(Caffentzis & Federici, 2014: 100). 이에 비하여 커먼즈 기반 공동체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며 누구에게나 접근 권리가 있으며 배제가 어려운 자원인 — 토지, 물, 숲, 공기,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 돌봄, 광장 —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Caffentzis & Federici, 2014; 김선필, 2014; 최현, 2013).

커먼즈의 개방성 및 폐쇄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커먼즈 공동체의 규모(scale)와 관련이 있다. 오스트롬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고립된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결성(connectivity)’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적인 것’들의 구성체인 도시에도 공동체라는 형태의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Huron, 2017; Kip et al., 2015). 오스트롬이 밝힌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서 50여 명에서 1만 5천 명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작은 규모의 공통자원과 이용 공동체를 통하여 “자발적인 조직 및 자치규율 형성 과정”을 손쉽게 관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다(오스트롬, 2010: 6). 커먼즈 경계는 ‘경계’ 내 공통의 자원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자원의 영역이 넓어지거나, 해당 공동체와 연계된 “중층의 내포(內包)된 관리단위(multiple-layers of nested enterprise)”²¹⁾가 확대되면 커먼즈의 경계는 동시에 확

21) 오스트롬의 “multiple-layers of nested enterprise”라는 용어의 번역은 연구자에 따라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윤홍근·안도경, 2010), “중층적 정합 사업단위”(김자경, 2019) 혹은 “중

대된다. 근대 이후 인클로저를 통한 자원, 부, 영토 등에 대한 축적은 중세시대에 유지되어 왔던 마을, 도시, 영지, 공국 등의 소규모 공동체의 틀을 와해하고 국가와 주권이라는 정치적·경제적 공간으로 대체시킴으로써(르페브르, 2011: 407~408) 규모와 공간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오늘날 인터넷, 미디어,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공동자원 이용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커먼즈 공동체의 규모는 확대되었다(Ostrom et al., 1999: 279). 즉,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커먼즈 공동체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공동자원의 규모에 따라 또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한 범위(경계)에 기반하여 변화되었다. 공동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커먼너의 규모는 커먼너 간 신뢰성의 제고와 공동체 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만드는 조직화와 자치의 범주이며, 때로는 내·외부를 차별화하고 배제와 포섭의 권력적 통제를 표출하는 장소로서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지역을 초월한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De Angelis & Stavrides, 2010).

요약하자면, 전통적 커먼즈 이론에서 의미하는 경계는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영역을 정의하기 위한 지점이며, 근대에 이르러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공동자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도시커먼즈는 장소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간으로의 확대로 이어졌다. 커먼즈 경계는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연관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커먼즈는 경계를 바탕으로 생성되지만, 경계가 개방성을 방해하거나 다른 커먼즈와 연결을 저

층의 내포된 관리단위”(장훈교, 2019) 등으로 다양하다. 기본적인 의미는 공동자원의 다양한 규모의 사용자 그룹이 여러 층으로 중복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원저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 “중층의 내포된 관리단위”(장훈교, 2019: 118)로 사용하였다(이 각주에서 앞서 언급된 괄호 안 이름은 해당 도서의 번역자들이다). 오스트롬은 펠리핀의 잔제라 관계 공동체와 스페인 우에르타 관계 제도의 사례를 들어 작은 단위 공동체가 사용하는 자원이 이를 포함하는 대규모 단위 공동체에 포함된 경우에서 상호 관련성을 제시하였다(오스트롬, 2010: 175, 338).

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때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전통적 커먼즈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커먼즈에서도 커먼즈의 경계는 커먼즈 영역의 확장을 불러올 수 있는 열린 세계와의 접점이자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3) 커먼즈 공동체는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구성된다

커먼즈 기반 공동체는 집합성(collectiveness)을 전제로 한다. 집합적 무리로서의 인간행동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숭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르 봉, 2013[1895]). 개인이 모여서 생성된 집단은 개인들의 산술적인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합적 잉여를 생산하며, 공동체로서 구성원 각자는 공적 존재로서 재탄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유형의 ‘개인’²²⁾이라는 개념은 합리적 개인이 집합적 행위자로 등장할 때, 개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함으로써 공동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했지만, 오스트롬 등이 제시한 실증 연구는 공동체가 공통자원관리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기 조직화(self-organized)를 수행하며, 이때 수많은 개인의 협력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오스트롬, 2010; Ostrom et al., 1999; Ostrom, 2007; 2008; 2010; 2014). 공통자원관리와 관련된 집합적 행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는 제주 행위리 사례와 같이 다양한 자원체계(목초지, 바다)가 구성하는 개별적 관리조직(목장회, 어촌계 등이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관계를 통하여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김자경, 2019). 지역공동체 구성원은 생존에 필수적인 다양한 각

22) 역사 인류학자 툴렌(2005)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인식과 관념은 중세 기독교에서 싹뻗으며, 새로운 자아로서 근대적 개인의 출현은 계몽사상과 함께 18세기 이후의 본격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때 개인의 의미는 공동체나 사회를 벗어나 전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매개되어 주체로 드러나는 존재를 의미한다(툴렌, 2005[1997]). 이 글에서도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원과 관련된 주도적 주체로서 개념을 포함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행위의 주체가 되었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의 계급적 힘이 드러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하여 자원에서 유리되면서 해제되는 집합적 사용자들에게서도 각각의 민주적 ‘자아’의 권리가 드러남을 의미한다.

각의 자원체계 조직에 중복하여 소속되어 이용과 관리의 규율을 만들고 준수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활과 자치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 운영의 근간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전통적 커먼즈 공동체의 구성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수의 공간적 자원을 대상으로 집합적 문제해결²³⁾을 위한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간결한 경로로 보여지는 데 반해서 도시커먼즈에서의 공동체의 구성은 복합적인 도시자원과 유동적인 낯선 사람들의 집합적 관계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도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구성 즉, 자기 조직화는 도시가 보유한 고유한 특성 — 이질성, 유동성, 개방성 — 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그 거주자들에게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도시공간은 도시 거주자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도시 거주민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가 창출되는 곳이다. 도시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익명의 개인들이 뉴요커, 파리지앵, 서울 사람과 같은 집합적 소속감²⁴⁾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과 관련된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적 비전(collective visions)을 구성하고 그들만의 도시의 개성을 창조해 내게 된다(Susser & Tonnelat, 2013). 도시의 낯선 이방인들은 일련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 협상을 통하여 사람과 자원, 공간을 연결하는 열린 네트워크 공간(De Angelis & Stavrides, 2010; Kornberger & Borch, 2015; Kratzwald, 2015)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도시커먼즈의 구성원(커머너)의 일원이 된다(Foster & Iaione, 2016: 288~290).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커머너의 '도시권'은 개별 도시자원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 거주자 자신

23) 오스트롬 등이 지적한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집합적 행위에 대한 자치의 규율과 관련된 문제는 ①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공급하는 문제, ② 신뢰할 만한 이행이 지켜질 수 있는가의 문제, ③ 상호 감시 활동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오스트롬, 2010).

24) Susser & Tonnelat(2013: 112~115)는 이와 같은 소속감을 “공통 지향적인 도시인(commonly oriented urbanite)”이라고 부른다.

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집합적 권리이다(Foster & Iaione, 2016: 294; Harvey, 2008: 23). 커먼즈에서의 집합적 행동, 집합적 권리 등은 개인의 권리와는 구별되는 공동체 구성원이 갖는 공적 존재로서의 행동과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자원과 시스템에 상호 결합함으로써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생산하지만, 폐쇄적 이익 공동체나 공동체주의자들과 같이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부족적 일체감으로 환원시키지는 않는다(영, 2017: 501~507).²⁵⁾ 도시는 다름, 차이와 같은 다양성을 통해서 생산되는 혁신과 창조성을 근간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적 존재로서의 도시 커먼너는 스스로 도시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됨으로써 도시자원 형성의 기제가 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로서의 가치와 행동에 대한 수용을 통하여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존재로 등장하였다.

도시커먼즈 커먼너의 이러한 특징은 도시자원의 사유화,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 취약한 복지 체제, 복잡한 도시 시스템의 가속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식 교환, 사회적 학습을 통한 협의,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했다(Feinberg et al., 2021). 이를 통하여 도시 공통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집합적 행동을 위한 자기 조직화를 추구한다(오스트롬, 2010; Foster & Iaione, 2016). 구체적으로는 가로, 공원, 공개공지와 같은 대·소규모 도시자원 관리를 위해 공적 규제 구조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원 지킴이, 자율 방법 활동을 한다든가(Colding et al., 2013: 159), 이웃 간 돌봄, 공동육아, 마을 의료 협동조합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자원이 되어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도 한다(Lapniewska, 2017:

25) 아이리스 매리언 영(2017)은 집단 간 사회적 차이는 발생하지만, 개방된 도시 공간에서 상이한 집합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동질화됨 없이 겹치고 섞이는 것을 도시 생활(city life)의 이상으로 제안하였다. 영은 도시 거주자의 이러한 작용을 '동일성으로 환원되는 공동체'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주장했지만, 커먼즈 관점에서는 이를 도시적 맥락에서 '도시커먼즈 공동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Ostrom, 2014). 도시커먼즈는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교육 및 공동생산을 위한 계기를 생성하고 상호 배려, 연대 및 안정감 같은 가치를 만들어 낸다. 도시문제의 두 가지 축인 과밀로 인한 혼잡과 과잉소비로 인한 파멸의 비극은 오히려 “규제 미비(regulatory slippage)”와 같은 커머닝의 부재에서 일어난다 (Foster & Iaione, 2016: 298). 도시커먼즈는 공존을 위한 협력적 사회를 지향하고 잠재적인 미래 사용자를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자원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정치적 주체라는 측면에서는 전통적 커먼즈와 차이가 없다. 다만, 도시적 맥락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커머너는 결속력 측면에서는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캐롤 로즈(Carol Rose)는 『커먼즈의 희극(The Comedy of the Commons)』에서 영국 법원이 대중들이 관습적으로 춤을 추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특정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 판결에서 “비조직화된 공중(unorganized public)”에게 재산권을 부여한 사실을 발견하였다(Rose, 1986, Foster & Iaione, 2016: 293에서 재인용). 지역 공동체의 불특정 다수에 속하는 대중들(공동체 구성원)에게 춤을 추는 공간은 공통의 자원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집합적 사회관계가 생성해 낸 비조직화된 공중에게 법적 권리를 승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도시 공동체의 어떤 이웃들은 제이콥스(2010)의 경쾌한 도시 이야기에 등장하는 상점 주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며 같은 가로를 사용하고 필요시 집 열쇠 보관을 맡길 수 있는, 신뢰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도시적 맥락에서 커머너²⁶⁾는 도시가 제공하는 자원과 인프라에서 생활의 편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 외 익명의 비조직화된 공중, 느슨하지만 상호 간 생활의 안정감을 유지시켜 주는 이웃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는 커머너의 특징에 대해 상호주의, 자아의식, 논쟁하려는 의지, 긴 기억, 집단적 축하, 상호부조라고 말한다(Kratzwald, 2015: 37에서 재인용). 도시적 맥락의 커머너의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은 변함이 없다.

3) 제도

(1) 커먼즈 제도 구성의 행위의 장은 자치영역을 의미한다

커먼즈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제도(Institutions)이다. 제도의 용어로서의 개념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안한 여러 형태의 제약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공식적·비공식적 규범이나 집행체제를 포함”한다(노스, 2007: xii).²⁷⁾ 즉, 사회를 이루는 가족, 기업, 시장, 정당, 국가와 같은 조직적 실체를 지칭하는 거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오스트롬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규칙, 규범 및 전략²⁸⁾에 의해 조직된 반복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유된 개념(the shared concepts)”으로서 제도의 개념을 정의했다(Ostrom, 2007: 23). 오스트롬의 ‘제도’는 잠재적 수혜자를 배제할 수 없는 커먼즈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며, 특정 공동체라는 “행위의 장(Action Arena)”²⁹⁾에서 집합적 행동의 주체인 행위자가 자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자치적 규율을 만드는 제도분석 및 발전 분석 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을 기반으로 한다(Ostrom, 2007; 2008; 오스트롬, 2010). 오스트롬과 그의 동료들

27) 제도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에 따르면 제도는 정치구조, 공식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소유권 구조, 그리고 경제 내의 비공식적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사회구조(규범 및 관습)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노스, 2007: 77~99).

28) 오스트롬은 규칙, 규범 그리고 전략에 관한 상세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규칙(rules)이란 특정 상황에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제재를 부과할 책임이 있는 대리인이 상호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게 시행하는 공유된 처방(반드시 해야 하는, 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규범(norms)이란 대내외적으로 부과된 비용과 유인책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 공유된 처방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전략(strategies)이란 관련 물리적 및 물질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 가능성에 대한 규칙, 규범 및 기대에 의해 생성된 인센티브 구조 내에서 개인이 만드는 정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Ostrom, 2007: 23).

29) 문제 분석을 위한 개별 ‘행위의 장(action arena)’에는 행위자(actor)와 행동상황(action situation)을 포함한다(Ostrom, 2007: 28). 행위자와 행동상황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경쟁 시장에서의 선택적 압력과 정보 생성과 같은 능력과 환경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Ostrom, 2007: 29~30). ‘행위의 장’은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이며 커먼즈를 구성하는 환경적 요건이 될 수 있다.

은 IAD 프레임워크의 작동 사례를 통하여 불안정한 정보와 제한된 능력의 집합적 행위자들이 규칙, 물리적 및 물질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에 따라 수많은 성공 사례나 실패한 경험을 제시하였다.³⁰⁾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커먼즈 자원관리제도의 공통점은 자원 사용자들 자신이 커먼즈 자원에 관한 모든 주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오스트롬이 제시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커먼즈들에서 확인된 여덟 가지 디자인 원리 중 제2원리부터 제8원리까지가 커먼즈의 자치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것³¹⁾(Kip et al., 2015: 14)을 고려하면, 커머닝은 자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e Angelis(2017)는 커먼즈의 개념에 커먼즈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규칙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커머닝을 통한 자치 규칙제정의 과정이자 결과물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수(plurality)가 자원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을 주장함으로써 자원과 그것이 생산되는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그 복수의 주체는 서로와의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De Angelis, 2017: 21~22). 다수는 커먼즈 자원을 생산하고, 사용가치를 커머너에게 분배하는 사회적 관계 모델을 구축·평가 및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관계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De Angelis, 2017: 30). 이때 공통자원은 커먼즈의 요소 중 하나가 되며 비로소 커먼즈 자원으로 변환된다.

커먼즈 구성요소로서 제도(커머닝)의 개념은 '모든 것의 구조이고 작동방식이

30) 오스트롬이 정리한 1999년에서 2007년 사이 IAD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제도분석 사례는 저술 목록 참조(Ostrom, 2007: 52).

31) 제1원리인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는 커먼즈 자원과 자원 사용 공동체의 범주를 설정한 것이며, 나머지 일곱 가지 원리는 ② 공동체 사용 규칙을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맞출 것, ③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규칙 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④ 공동체 구성원의 규칙제정 권리가 외부 당국에 존중될 것, ⑤ 구성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 ⑥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⑦ 분쟁 해결을 위한 저비용 수단 확보, ⑧ 공동자원이 속한 상호 연결된 중층적 계층의 책임 구축이다(오스트롬, 2010: 175).

며 공동체에 내면화된 규칙'으로서 다른 수많은 학제 간 연구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 학자들이 규정한 제도(커먼즈)는 제도를 만드는 행위자와 제도가 작동되는 행위의 장에 대한 전제가 다를 뿐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커먼즈가 존재하지만, 근대사회 이후 제도로써 작동하는 행위의 장은 '사적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내세운 자본주의 팽창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규율이 적용되는 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커먼즈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근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규범적 속성을 커먼즈가 작동되는 행위의 장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적 소유권과 국가의 기능'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³²⁾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탓이다. '소유권 제도와 외부 세력에 의해 규율된' 제도는 수많은 행위자와 행위의 장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며, 유일하거나 무오류의 제도가 아님에도 대다수의 학제 간 연구 등에 수용되어 교조화되었다. 반면에 커먼즈를 구성하는 또는 커먼즈를 이해하기 위한 제도는 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커먼즈 제도가 만들어지는 행위의 장은 자원에 대한 집합적 권리를 기반으로 자기 조직화와 자치에 관한 규율을 만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2) 도시커먼즈의 행위의 장은 자기 조직화와 자치를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한다

근대 이후의 도시는 자본주의에 포획됨으로써 국가와 시장의 지배에 예속되거나(김용창, 2015; 황진태, 2016; 하비, 2014), 도시 자체가 자본화됨에 따라 도시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며 위계적인 체계의 말단에 자리하게 된다(도슨, 2021; 머터, 2016; 스콧, 2010; 클라인, 2016). 그럼에도 다양한 익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체로서 '공통의 삶'을 만드는

32) 경로의존성은 현재의 선택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신념체계, 제도 그리고 인공적 구조물 등의 조합들이 부과하고 있는 제약을 의미한다(노스, 2007: 82).

본질적 속성(Huron, 2015; Kip et al., 2015)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커먼즈가 발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정부들이 국가의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물, 교통, 주택과 같은 공통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sser & Tonnelat, 2013).³³⁾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주목한 도시도 권력과 자본이 창조해 낸 획일적인 통제나 기획으로 조성된 계획도시가 아니라 도시 거주자의 집단적 지혜로 생겨난 공간이다(제이콥스, 2010). 그는 인구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용도 혼합 그리고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창조해 낸 복잡성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밀도와 활력 속에 사람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스스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행위의 장’으로서의 도시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도시가 가장 자본주의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커먼즈가 발현되고 활성화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이며, 일상의 활동이 창출하는 노동, 놀이, 교류 등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것 자체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이다(네그리·하트, 2014). 도시의 양가적 특성 — 자본의 외부효과, 커먼즈의 저장소 — 에도 불구하고, 도시커먼즈가 근대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환경적 위기에 대응 방안으로 선택된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생계수단의 공유에 있어 공통자원의 사용·분배를 위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규범을 제공하는 협상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Kratzwald, 2015). 커먼즈가 제도로서 국가나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지배적 제도와와의 가장 큰 차별점을 찾는다면,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기 조직화를 통한 자치를 기본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오스트롬, 2010). 자기 조직화와 자치가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주어진 공통자원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접근과 사용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공론의 장’³⁴⁾으로서 커먼즈 행위의 장은 커먼

33) 미국의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대기 자원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유지로 인식하고 국제협약(교토협약, 파리협약 등)을 승인했다(Byrne et al., 2022).

즈 공동체 구성원 모두(약자가 배제되지 않는)에게 공통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즉, 도시커먼즈의 행위의 장도 앞서 전통적 공통자원의 커머닝과 다를 바 없이 생존을 위한 집합적 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조직화와 자치를 실천하는 공간이 된다.

(3) 모든 커먼즈는 자기중심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

커먼즈 공동체는 공통의 자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자체 규범의 수립, 규칙 준수와 같은 조직화와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다. 오스트롬의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제7원리인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minimal recognition of rights)”이 준수되는 영역을 의미한다(오스트롬, 2010: 191~192). 그런데 집합적 행동 문제는 소수의 개인이 관련된 아주 작은 문제부터 대기 및 바다와 같은 지구 자원과 관련된 매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양하다(Ostrom, 2008). 예컨대, 기후위기 문제해결의 어려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은 다층적 규모의 행위자들 — 개인, 가족, 기업, 국가 등 — 이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관련된 국제 수준의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는 국민국가 단위의 통치체제에서 논의의 중이며, 수십 년째 국가적 단위의 참여만으로는 유효한 성과를 내지 못하

34) 이 글에서 사용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용어는 하버마스의 ‘공론장’(『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수용하였다. 커먼즈 행위의 장이 생산하는 자기 조직화와 자치는 공통의 자원과 이에 따른 집합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비판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포함한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적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제한된 정치공동체의 토의 민주주의 모델로서 주변화된 사람들(노동자, 여성, 빈곤층, 소수자 등)을 배제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정치적 힘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공론의 유효성에는 의문이 있다(프레이저, 2010). 다만, 공론장이 탈영토화되고 사이버공간으로 변화함으로써 화자와 청취자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신자유주의적 포식자에 의해 상품화되거나 인클로저 된다면 커먼즈 행위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소멸할 것이다. 공론장의 유효성에 관한 부분은 커먼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분권성 또는 민주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있다(Ostrom, 2014: 98~99).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오스트롬의 디자인 제8원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통자원의 사용, 제공, 모니터링, 집행, 분쟁 해결, 운영 활동 등의 협의와 실천이 “중층의 내포(內包)된 관리 단위(multiple-layers of nested enterprise)”로 조직화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오스트롬, 2010: 192~193). 따라서 공통자원의 생산이나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이나 중앙집권적 정부의 통치와는 다른 제도의 공급이 요구된다(Ostrom, 2008). 즉, 각각의 커먼즈 공동체가 보유하는 다양한 자율적 체제와 결정권을 인정하지만, 이들 커먼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다중심적 접근(polycentric approach) 방법이 그것이다(Ostrom, 1999; 2008; 2010; 2014). 빈센트 오스트롬은 다중심성(polycentricity)에 대하여 “서로 독립된 수많은 의사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의했다(Ostrom, Tiebout & Warren, 1961: 831, 장훈교, 2019에서 재인용). 즉, 복수의 통제 단위들로 독립적인 의사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전체의 관리를 위한 공동 조정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독립적임과 동시에 협력적 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장훈교, 2019: 109).

도시커먼즈의 환경적 특성으로서의 ‘행위의 장’은 도시 집합성(urban collectivity)과 연결성(connectivity)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중심성이 커먼즈 이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연결된 세계로서의 도시가 직면한 집합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중심성 접근방법은 전체 사회 질서 구성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기되었으며, 구성단위들의 협력과 경쟁을 토대로 일반 규칙체계를 구성한다(장훈교, 2019: 127). 오스트롬은 이런 일반규칙 체계의 제정 상황을 ‘구조적 상황’³⁵⁾이라고 부르고,

35) 윤홍근·안도경(2010)이 엘리너 오스트롬의 대표 저작 *Governing The Commons* (1990)를 국내에 번역 출간하면서 오스트롬의 제도에 대한 다층적 분석 수준을 실행규칙(operational rules), 집합 선택규칙(collective choice rules), 헌법 선택 규칙(constitutional choice rules)으로 번역하였고(105~113),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오스트롬이 사용한 ‘constitutional’을 ‘헌법적’으로 번역하였다. 헌법(Constitution)은 본래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합의를 의미하고 있으나, 오스트롬이 사용하는

여기서 도출되는 규칙을 ‘구조적 규칙’이라고 정의한다(오스트롬, 2010: 105~113). 이 구조적 규칙은 상호 조정을 위한 규칙이 되지만, 각 관리 단위는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율적 행위의 장을 구성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집행적 행동의 주체는 지방, 지역, 국가, 국제라는 중층적 구조 내에서도 자원 이용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가장 낮은 관리 단위(커먼즈 또는 공동체)의 행위자들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과 가족생활에서 결정하는 교통, 전력 소비, 건물 열효율이 궁극적 대응의 첫 출발점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Ostrom, 2014).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간 협약 — 단일한 글로벌 수준의 해결 약속 — 을 바탕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의 실패는 국가별 국내 정치의 갈등에서 비롯된다(Hochstetler & Viola, 2012). 이는 지구적 공동자원 문제의 해결은 국가 간 협의뿐 아니라 지방, 지역 차원의 다양한 집합적 행동에 대한 관리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Caggiano & Landau, 2021; Ostrom, 2014; Ostrom et al., 1999).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적 기후정책이 붕괴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지배적 권력 바깥에서 비계층적이며 상호작용적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천을 실행했다(Byrne et al., 2022). 즉, 글로벌 커먼즈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다중심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커먼즈의 커먼너는 지역 공동체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중층적 규모 — 지방, 지역, 국가, 지구 —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일부인 것이다.

다중심성 이론은 지역 규모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하여 글로벌 커먼즈 구축의 가능성을 제공했다(Ostrom et al., 1999).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단일한 하향식 지배 권력 또는 다원적 행위자들 간의 조정의 문제를 넘어 각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자치 체제의 실효적 가치를 입증한 점이다.³⁶⁾

‘constitution’의 의미는 국가 단위의 규칙·제도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최상위 층위의 제도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이 글에서는 ‘구조적’으로 번역 사용한다.

지역 단위 커먼즈 구성원은 중층적 구조 속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 수준의 독립적인 집합적 행동 결과를 도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층의 내포된 관리 단위의 시민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Ostrom, 2010; 2014). 다중심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분산하고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제도적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Caggiano & Landau, 2021). 오늘날 인류가 처한 엄중한 위기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안된 커먼즈의 효능감은 다중심성을 통하여 지역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 각 커먼즈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4. 커먼즈 쟁점의 재해석을 통해서 본 도시커먼즈의 새로운 이해

앞선 논의에서는 커먼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도시커먼즈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앞선 논의를 통하여 커먼즈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쟁점들 — 인간과 자원 간의 관계, 자원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커먼즈 관점에서의 공동체의 의미 — 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커먼즈 구성요소를 통하여 드러나는 커먼즈의 보편적 원리에 대한 해석과 도시커먼즈의 특이점을 도출한다.

우선,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에 차별적으로 또는 공통으로 제기되었던 요소를 쟁점별로 살펴보자. 첫 번째 쟁점은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원과 맺는 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끊임

36) 오스트롬 등의 유명한 대도시 경찰조직에 대한 연구, 공립학교 연구 등은 미국과 캐나다 지방 정부의 집권적 하향식 공적 서비스가 더 효율적이지도 더 민주적이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Ostrom, 2008; 2010; 2014).

없이 변화하는 것임에도, '사적 소유권과 그 외의 관계'로 고착된 이분법적 논리가 형성됨에 따라 커먼즈 자원을 소유권의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다. 근대 이후 사적 소유권에 바탕을 둔 자원의 상품화는 자원사용에 있어 '명확하고 단순한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지구적 자원의 탈취와 고갈을 불러왔다. 즉, 상품화된 자원이 자원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혹은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환경을 소외시켰다. 반면에 커먼즈 자원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천부적인 집합적 권리이거나 집합적 활동에 의해 생산된 비상상품화된 자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커먼즈 자원이 모든 영역에서 존속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유는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가 자원에 대한 권리와 행동을 규제하는 사적 소유권에 기반한 관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공통적인 것'은 자원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자원 사용자 간의 형평성,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민주적 규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공성의 가치를 제공한다.

두 번째 쟁점은 커먼즈의 개방성에 대한 문제이다.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인 반면 도시커먼즈는 개방적이라는 통념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커먼즈의 개방성과 폐쇄성의 문제는 '명확한 경계'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 '경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원에 대한 '경계'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소유권(또는 용익권 개념)에 따라 자원 이용 및 배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자원 사용자의 범위를 '경계'로 가정하고 그 변경이 가능한가의 여부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커먼즈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적 의미의 '경계'가 아닌 자원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경계'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경계'의 의미는 커먼즈 공동체의 개방성 여부로 판단하였다. 커먼즈 구성요소로서의 공동체(또는 커머니)는 자원을 매개로 구성되는 집합적 정체성이며, 그들 간의 협약과 규약으로 탄생하였다. 오스트롬의 공통자원관리 디자인 제1원리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의 '경계'는 외부인의 자원사용 배

제를 위한 요건이 아니라 자원 사용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들 간의 자원보존을 위한 자율적 자치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때의 경계가 폐쇄성을 의미할 수 없음은, 커먼즈 자원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임을 감안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커먼즈 공동체의 경계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또 하나의 지점은 '경계' 너머의 세계와의 관계이다. 커먼즈 공동체는 커머너의 상호작용을 통한 호혜적 관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신뢰성의 제고를 통해서 구축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리적 한계의 극복은 지역을 잇고 커머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커먼즈 공동체는 '경계'를 확대한다. 따라서 커먼즈 공동체의 경계는 '폐쇄성'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커먼즈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와 자치 규범에 대한 준수와 수인(修忍)의 범위이다. 커먼즈의 경계는 공동체 영역 '너머' 세계와 시대를 달리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포용의 접점이다. 공통자원이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관계의 산물이라는 전제는 이러한 경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다.

세 번째, 커머닝 관점에서의 공동체의 의미이다.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통념 — 작은 규모 단위에서 동일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 — 을 전통적 커먼즈에 적용하고, 도시커먼즈 공동체와 구별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커먼즈 공동체는 커먼즈 자원을 기반으로 커머닝을 통하여 구성된다.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신념에 기반한 무리와는 구별된다. 또한 생존에 필요한 공통자원 관리에 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율적 자기 조직화와 자치의 과정은 공통자원이 무엇이든 같은 경로를 통하여 형성된다.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유의식은 이질적이며,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적 맥락에서도 지역적 소속감에는 변함이 없이 작동한다. 애초에 커먼즈는 동질성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공통의 자원을 재생산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관계로 구성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도시커먼즈는 공존을 위한 협력적 사회를 지향하고 잠재적인 미래 사용자를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통자원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는 정치적 주체임에는 전통적 커먼즈와 차이가 없다. 다만, 도시에서의 생활은 더 다양하고 복잡하며 바빠 움직이며, 이로 인한 지식과 사회적 부가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거주자들은 지식 교환,

사회적 학습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자연에서 얻는 물질의 가치와 비교하여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적 자원의 부가가치가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의 보다 능동적인 행위와 권리가 부각된다.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질적이며 유동적이며 다양한 도시적 특성에 따라 비조직화되고 느슨한 관계의 공동체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커먼즈 공동체에서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공통자원의 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밝히고 있는 인간의 소통과 학습, 교류로 인한 정보 비대칭 해소와 협력적 행위가 생성하는 자율적인 집합적 단위의 구성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커먼즈 논의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제기되는 소유권, 경계, 공동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를 커먼즈 구성요소의 재해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든 도시커먼즈든 각 커먼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합되어 나타나는 특이성 외 커먼즈의 보편적 구성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커먼즈의 특성 중 일부 시·공간적 한계가 커먼즈의 일반적 특성일 수 없음은 도시커먼즈에서 도시적 맥락의 특성과 비교를 통하여 모호했던 논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커먼즈 이론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커먼즈 구성요소의 재해석 과정에서 도시커먼즈의 중요한 특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달리 도시커먼즈는 도시 거주자의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도시 자체가 커먼즈 자원이 된다. 또한, 도시커먼즈의 커머너는 도시화로 인한 집합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거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함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도시를 발전시키는 능동적 주체자로 등장한다. 도시커먼즈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도시민은 근대 국민국가가 부여한 근대적 '시민권'의 주체와는 구별된다.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시민권이 명분상의 논리적 귀결로서의 추상적 권리라면, 도시에 대한 도시 커머너의 권리는 그 기반이 도시 거주자 스스로가 커먼즈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누구도 배제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실질

적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났다. 도시커먼즈의 두 번째 특징은 도시커먼즈의 환경적 특성으로서 행위의 장은 도시 집합성 및 연결성과 관련이 있다. 커먼즈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과 관련된 문제는 내포된 관리 단위로 조직화되어 있으므로, 지구적 공동자원 문제부터 미시적 집합적 행동에 관련된 모든 커먼즈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오스트롬이 제시한 다중심성은 이와 같은 개별적이며 독립적이되 연결된 세계에 대한 이론적 논리를 제공한다. 다중심성은 각 관리 단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지방, 지역, 국가, 지구적 공동체의 다층적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각 규모에 상응하는 단위별 집합적 행동의 중층적 해결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단위별 도시커먼즈 행위의 장이 구축하는 자기 조직화와 자치가 제공하는 지역 규모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하여 글로벌 커먼즈 구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것은 하향식의 집권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대체하고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국민, 또는 법치를 가장한 허구적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에 해안을 제공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인구가 자원이 밀집되어 드러나는 도시의 난맥상은 소수 엘리트들이 대상화된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으며, 도시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도시민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실행을 감행할 때 비로소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도시(또는 인류)가 처한 위기 대응 방안으로 커먼즈가 제공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다. 커먼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자율적이며 분권적인 관계로 구조화하며 공존과 지속가능성의 해법으로 작동함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와 사회제도를 포괄하는 방대한 커먼즈 논의를 짧은 논의에 압축함으로써 과도한 비약과

빈약한 논거가 일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전통적 공통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 도시 커먼즈 사이의 심원한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였다. 근대 이후 커먼즈에 대한 소환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극복을 위한 요구임에도 전통적 커먼즈와 단절된 도시커먼즈를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오래된 지혜의 보편적 타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 공통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커먼즈와 도시커먼즈의 시·공간적 특이성을 견주어 커먼즈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커먼즈 소환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였다. 두 번째 도시커먼즈의 특이점으로 자연을 대상화하는 전통적 커먼즈와 달리 도시 거주자 자신과 그들이 생산한 도시가 공통자원이 되는 커먼즈의 능동적 주체성을 부각시켰다. 국민국가에서 부여된 허구적 시민권이 아니라, 도시 거주자의 도시에 대한 권리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권리로서의 도시권을 커먼즈 관점에서 환기시켰다. 세 번째 도시커먼즈의 자기 조직화된 자치단위가 실은 아주 작은 커먼즈부터 글로벌 커먼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구적 지속가능성의 기본 단위가 됨을 다중심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로서의 가치를 재고했다. 커먼즈 논의의 중요성은 사람과 자원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관리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이 가능한 제도의 제공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커먼즈가 구성되는 '행위의 장'이 제공하는 '공론의 장'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교류, 학습,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공통의 것'에 대한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위가 그와 연계된 도시 간, 범지구 단위에서도 중층의 내포된 단위이며 역동적인 행위의 결과를 산출하는 기본 단위라는 것이다.

도시는 사람과 자원이 밀집하고 그 다양성이 다시 과밀을 재생산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커먼즈와 자본주의의 성장을 촉진하는 양가적 특성이 있다. 도시는 도시 거주자들의 실천을 통하여 구성되는 공통자원임에도 외부성으로 제공되는 잉여가치로 취급된 경우에는, 도시 거주자들을 상품화된 도시의 소비자로 격하시키고 양극화시킬 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기후위기 등으

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반면에 도시 거주자 스스로 생산한 자원을 자기 조직화와 자치를 통하여 '공통의 것'을 추구할 때에는 도시커먼즈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중국적으로는 도시 거주자 자신들과 자손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의 집합적 행위에 대한 가정은 고립된 그들만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기꺼이 협력함으로써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커먼즈 행위의 장은 주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도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 거주자들은 도시권의 주체가 될지 상품 소비자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도시를 생산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도시에 다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향후 도시커먼즈의 과제는 다중심성 이론이 제시하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이 되 연결되어 있는 자치단위로서의 '중층의 내포된 관리 단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오스트롬의 디자인 원리에서 제시하는 관리 단위는 공통자원 사용자 공동체로 제시될 뿐, 공동체와 도시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사례와 실증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기존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조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조직화된 능동적 시민 자치와 선출된 대의제 권력과의 관계 및 그 접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처럼 도출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나 실천에 대해서 도시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중재하고, 협력할 것인가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에 부합하는 구체화된 제도를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제를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원고접수일: 2024.02.08.

1차심사완료일: 2024.03.04.

1차수정완료일: 2024.03.11.

2차심사완료일: 2024.03.12.

게재확정일: 2024.03.12.

최종원고접수일: 2024.03.18.

Abstract**Reinterpretation of urban commons from the perspective of Ostrom's commons theory: Focusing on commons components**

Myenghee An · Taehwa Lee

The commons is defined as a pragmatic process that crafts a series of social practices, values, and nor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mmon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theorization of urban commons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universality of commons, as applied to urban contexts, and the particularities of urban settings, grounded in the empirical studies and theories of commons presented by Ostrom and others concerning traditional resources. It focus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ommons—resources,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commoning)—to articulate and scrutinize issues, thereby attempting a reinterpretation of urban commons. Key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esources traditionally explained through ‘private ownership and beyond,’ the prevalent view of traditional commons as closed versus urban commons as open, and common notions regarding commons communit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humans, this examination seeks to transcend the conceptual path dependency skewed towards private ownership, illuminating the public nature inherent in common resource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common resources. The ‘boundaries’ mentioned in commons theory as a basis for exclusivity are suggested not so much as markers of exclusion from resource use but rather as indicators of the scope within which self-organization and autonomy of resource users, that is, the operational domain of common resources, take place. Finally, commons communities are not merely assemblies based on identical beliefs but spaces for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trust-building through the interaction and learning among resource users, governed by autonomous norms. Furthermore, examining urban comm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collectivity, diversity, complexity, connectivity) reveals that unlike traditional commons, urban commons transform the daily lives of city dwellers and the city itself

into common resources, organizing each urban common as an independent yet interconnected management unit within an organic network. Future research is necessitated on practical approaches for igniting urban commons within cities saturated with capitalism and on institutionalizing collaborative relations between urban comm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city governance.

Keywords: Urban Commons, Common Resources, Communities, Institutions(Commoning Practices), Self-Governance

참고문헌

- 강현수. 2021. 『도시에 대한 권리』. 서울: 책세상.
- 권범철. 2020.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제101호, 17~49쪽.
- 글레이저, 에드워드(Edward Glaeser). 2011. 『도시의 승리』. 이진원 옮김. 서울: 해냄출판사.
- 김선필. 2014. 「공유재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통한 공유재 비극 모델의 재해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3호, 172~200쪽.
- 김영희. 2018.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법과사회》, 제27호, 153~204쪽.
- 김영희. 2020. 「민법의 현대화와 민법에 사회적 공유 규정 두기」. 《서울법학》, 제27권 4호, 101~176쪽.
- 김용창.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4호, 431~449쪽.
- 김자경. 2019.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3권 1호, 35~74쪽.
- 네그리, 안토니오·하트, 마이클(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 2014. 『공통체』. 정남영 옮김. 서울: 사월의책.
- 노스, 더글러스(Douglass Cecil North). 2007. 『경제변화와정에 관한 새로운 이해』. 조석곤 옮김. 서울: 해남.
- 도슨, 애슐리(Ashley Dawson). 2021. 『극단의 도시들: 도시, 기후위기를 초래하다』. 박삼주 옮김. 서울: 한울엠플러스.
- 덜먼, 리하르트 반(Richard van Dulmen). 2005. 『개인의 발견』. 최윤영 옮김. 서울:현실문화연구 [Originally published in 1997].
- 덜레니, 데이비드(David Delaney). 2013. 『영역』. 박배균·황성원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라인보우, 피터(Peter Linebaugh). 2012.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권들과 커먼즈』. 정남영 옮김. 서울: 갈무리.
- 로크, 존(John Locke). 1996.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Originally published in 1689].
- 르 봉, 귀스타브(Gustave Le Bon). 2013. 『군중심리』. 이재형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Originally published in 1895].
- 르페브르, 앙리(Henri Lefebvre).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맥마이클, 필립(Philip McMichael). 2013. 『거대한 역설』. 조효제 옮김. 서울: 교양인.
- 머터, 존 콜린(John Colin Mutter). 2016. 『재난불평등』. 장상미 옮김. 파주: 동녘.
- 멈포드, 루이스(Lewis Mumford). 2016. 『역사속의 도시』. 김영기 옮김.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바우웬스, 미셸·코스타키스, 바실리스(Michel Bauwens and Vasilis Kostakis). 2018. 『네트워크

-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윤자형 옮김. 서울: 갈무리.
- 박인권·김진연·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9권 3호, 62~113쪽.
- 박태현·이병천. 2017.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공유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1호, 7~39쪽.
- 볼리어, 데이비드(David Bollier). 2015.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배수현 옮김. 서울: 갈무리.
-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2018.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과 아렌트를 넘어서』.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서울: 이음.
- 샌들, 마이클(Michael Sandel). 2008.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선옥 외 5인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35~67쪽.
- 스가 유타카. 2014. 「공동자원의 희극: 인류학이 공동자원론에 기여한 것」.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 최현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기: 경인문화사. 15~36쪽.
- 스콧, 제임스 C.(James C. Scott).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영, 아이리스 매리언(Young Iris Marion).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서울: 모티브북.
- 오스트롬, 엘리너(Elinor Ostrom). 2010.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이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옮김. 서울: 랜덤하우스[Originally published in 1990].
- 우자와 히로후미(宇澤弘文). 2019.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제주대학교공동자원과 지속가능 사회연구센터 공동자원연구총서 11)』. 이병천·김자경·윤여일·최현 옮김. 과천: 진인진.
- 월재스퍼, 제이(Jay Walljasper). 2013.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박현주 옮김. 서울: 검등소.
- 윤여일, 2022. 「도시 속 공터는 어떻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 커먼즈를 상호비교하여」.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45~89쪽.
- 이노우에 마코토(井上真). 2014. 『공동자원론의 도전』. 최현·정영신·김자경 옮김. 서울: 경인문화사.
- 이병천. 2018.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 《시민과 세계》, 제33권, 239~262쪽.
- 장훈교. 2019. 「엘리너 오스트롬의 '다중심적 접근'에 관한 기초 연구」. 《사회와 이론》, 제35집, 101~137쪽.
- 정영신. 2014.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8권 2호, 205~214쪽.
- _____.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1호, 399~442쪽.
- _____. 2017.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로컬리티 인문학》, 제17권, 119~163

쪽.

_____.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제23권 4호, 237~259쪽.

제이콥스, 제인(Jane Jacobs).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옮김. 서울: 그린비.

조원희. 2011.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외부효과: 시장과 비시장 영역」. 《사회경제평론》, 제37권 1호, 255~310쪽.

최명식. 2022.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90~122쪽.

최현. 2013. 「제주의 토지와 지하수」.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7권 2호, 79~106쪽.

카프라, 프리조프·마테이, 우고(Fritjof Capra-Ugo Mattei). 2019. 『최후의 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박태현 옮김.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클라인, 나오미(Naomi Klein).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순희 옮김. 파주: 열린책들.

프레이저, 낸시(Nancy Fraser). 2010. 『지구화 시대의 정의』. 김원식 옮김. 서울: 그린비.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 2014.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서울: 한울엠플러스.

한경애. 2022. 「마을 공동체에서 도시적 커먼즈로 동아시아의 시선으로 보는 도시적 커먼즈」. 《공간과 사회》, 제32권 4호, 11~44쪽.

한운애. 2016. 「도시공유재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 사회》, 제26권 3호, 42~76쪽.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2호, 1~16쪽.

IPCC. 2022. 『기후변화 2022 영향, 적응 및 취약성 의사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편집. 환경부.

Araral, E. 2014. "Ostrom, Hardin and the commons: A critical appreciation and a revisionist view."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Vol.36, pp.11~23.

DOI: 10.1016/j.envsci.2013.07.011

Balmer, I., Bernet, T. 2015. "Housing as a common resource? Decommodification and self-organization in housing: Examples from Germany and Switzerland."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ik, M., Mueller, A. K., and Schwegmann, M. (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euser, Basel, pp. 178~195. DOI: 10.1515/9783038214953-012

Borràs, S. 2019. "Colonizing the atmosphere: a common concern without climate justice law?"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Vol.26, pp.105~127.

DOI: 10.2458/v26i1.21817

- Bresniha, P. & Byrne, M. 2015. "Escape into the City: Everyday Practices of Commoning and the Production of Urban Space in Dublin." *Antipode*, Vol.47, No.1, pp. 36~54. DOI: 10.1111/anti.12105
- Byrne, J., Taminiau, J., Nyangon, J. 2022. "American policy conflict in the hothouse: Exploring the politics of climate inaction and polycentric rebell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Vol.89, pp.1~16. DOI: 10.1016/j.erss.2022.102551
- Caffentzis, G & Federici, S. 2014. "Commons against and beyond capit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49, No.1, pp.i92~i105.
- Caffentzis, G. 2012. "A Tale of Two Conferences: globalization, the crisis of neoliberalism and question of the commons." *Borderlands*, Vol.11, No.2, pp.1~32.
- Caggiano, H & Landau, L. 2021. "A new framework for imagining the climate commons? The case of a Green New Deal in the US." *Planning Theory*, Vol.21, No.4, pp.380~402. DOI: 10.1177/14730952211042765
- Colding, J., & Barthel, S. 2013. "The potential of "Urban Green Commons" in the resilience building of cities." *Ecological Economics*, Vol.86, pp.156~166. DOI: 10.1016/j.ecolecon.2012.10.016
- De Angelis, M. & Stavrides, S. 2010. "On the Commons: A Public Interview with Massimo De Angelis and Stavros Stavrides." *e-flux journal*, No.17, pp.1~17.
- De Angelis, Massimo. 2017.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London: Zed Books, pp.30~45.
- Feinberg, A., Ghorbani, A., & Herder, P. 2021. "Diversity and Challenges of the Urban Commons: A Comprehensiv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Vol.15, No.1, pp.1~20. DOI: 10.5334/ijc.1033
- Foster, S.R. &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and Policy Review*, Vol.34, pp.281~349. <https://www.jstor.org/stable/43920369>
- Harvey, Davi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Vol.53, pp.23~40.
- _____. 2011. "The future of the commons." *Radical History Review*, Vol.109, pp.101~107. DOI: 10.1215/01636545-2010-017
- Helfrich, S. 2012. "The logic of the commons and the market: A shorthand comparison of their core beliefs." in D. Bollier & S. Helfrich(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 Helfrich, S. 2014. "Common goods don't simply exist: They are created." <http://wealthofthecommons.org/essay/common-goods-don%E2%80%99t-simply-exist-%E2%80%93-they-are-created> (검색일: 2022.9.28)
- Hochstetler, K & Viola, E. 2012. "Brazil and the politics of climate change: beyond the

- global commons.” *Environmental Politics*, Vol.2, No.5, pp.753~771.
DOI: 10.1080/09644016.2012.698884
- Howard, E. 1965. *Garden Cities of To-Morrow*. Cambridge: The MIT Press[Originally published 1898].
- Huron, A. 2015. “Working with Strangers in Saturated Space: Reclaiming and Maintaining the Urban Commons.” *Antipode*, Vol.47, No.1, ISSN 0066-4812, pp. 963-979 DOI: 10.1111/anti.12141
- _____. 2017. “Theorising the urban commons: New thoughts, tensions and paths forward.” *Urban Studies*, Vol.54, No.4, pp.1062~1069. DOI: 10.1177/0042098016685528
- Kip, M., Bienioik, M., Dellenbaugh, M., Mueller, A. K., and Schwegmann, M. 2015.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ik, M., Mueller, A. K., and Schwegmann, M.(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euser, Basel, pp.9~25.
- Kip, Markus. 2015. “Moving Beyond the City: Conceptualizing Urban Commons from a Critical Urban Studies Perspective.”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ik, M., Mueller, A. K., and Schwegmann, M.(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euser, Basel, pp. 42~59. DOI: 10.1515/9783038214953-003
- Kornberger, M. & Borch, C. 2015. “Introduction Urban Commons.” in Borch, C., Kornberger, M.(eds.).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Abingdon, UK; New York, NY, USA, pp.2~21.
- Kratzwald, B. 2015. “Urban commons-dissident practices in emancipatory spaces.” in Dellenbaugh, M., Kip, M., Bienioik, M., Mueller, A. K., and Schwegmann, M.(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aeuser, Basel, pp.26~41. DOI: 10.1515/9783038214953-002
- MacLellan, M. 2016, “The Tragedy of Limitless Growth: Re-interpreting the Tragedy of the Commons for a Century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umanities*, Vol.7, pp.41~58. DOI: 10.1215/22011919-3616326
- Macpherson, C. B. 1973.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London: Oxford.
- Mattei, U. 2012. “First Thoughts for a Phenomenology of the Commons.” in D. Bollier & S. Helfrich(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https://wealthofthecommons.org/essay/first-thoughts-phenomenology-commons>
- Negri, A. & Hardt, M. 2004. *Multitude*. New York: Penguin

- Netting, Robert McC. 1976. "What Alpine Peasants Have in Common: Observations on Communal Tenure in a Swiss Village." *Human Ecology*, Vol.4, No.2, pp.135~146.
- Noterman, E. 2019. "Book Review: Carving Out the Commons: Tenant Organizing and Housing Cooperatives in Washington, D.C. by Amanda Huron(2018)." *Antipod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4429516>
- Ostrom E, Burger J, Field CB, Norgaard RB, Policansky D. 1999. "Revisiting the Commons: Local Lessons, Global Challenges." *Science*, Vol.284, pp.278~282. DOI: 10.1126/science.284.5412.2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Crowding out citizenship."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23, No.1, pp.3~16. DOI: 10.1111/1467-9477.00028
- _____. 2007.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An Assessment of the IAD Framework." in Paul A. Sabatier(ed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pp.21~64.
- _____. 2008. "Polycentric systems as one approach for solving collective action problem." <https://ssrn.com/abstract=1304697>
- _____. 2010. "Polycentric systems for coping with collective ac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20, pp.550~557. DOI: 10.1016/j.gloenvcha.2010.07.004
- _____. 2014. "A polycentric approach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nals of economics and finance*, Vol.15, No.1, pp.97~134.
- Ostrom, V., Tiebout, C. M. & Warren, R. 1961.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Metropolitan Areas: A Theore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5, No.4, pp.831~842.
- Parker, P., Jahansson, M. 2012. "Challenges and potentials in collaborative management of urban commons." in D. Modic, A. Kovacic, T. Besednjak Valic, U. Lamut and G. Rinzivillo(eds.). *Multi-Faceted Nature of Collabor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Vega Press, pp.92~113. <http://www.diva-portal.org>
- Rose, C. M. 1986. "The Comedy of the Commons: Custom, Commerce, and Inherently Public Property." *U. CHI. L. REV.*, Vol.53, No.3, 711, p. 767.
- _____. 1994. *Property and Persuasion*. SanFrancisco, CA: Westview Press.
- Schauppenlehner-Kloyber, E. & Penker, M. 2016. "Between Participation and Collective Action: From Occasional Liaisons towards Long-Term

- Co-Management for Urban Resilience.” *Sustainability*, pp.1~18. DOI: 10.3390/su8070664
- Scherhorn, G. 2012. “Transforming global resources into commons.” in D. Bollier & S. Helfrich(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pp.395~401.
- Siefkes, C. 2012. “The Boom of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in D. Bollier & S. Helfrich(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https://wealthofthecommons.org/essay/boom-commons-based-peer-production>
- Stavrides, S. 2014. “Emerging Common Spaces as a Challenge to the City of Crisis.” *City*, Vol.18, pp. 546~550. DOI: 10.1080/13604813.2014.939476
- Susser, I. & Tonnelat, S. 2013. “Transformative cities: the three urban commons.” *Focaal: Journal of Global and Historical Anthropology*, Vol.66, pp.105~132. DOI: 10.3167/fcl.2013.660110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ST/ESA/SER.A/420)*. New York: United Nations.
- Łapniewska, Z. 2017. “(Re)claiming space by Urban common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49, No.1, pp.54~66. DOI: 10.1177/0486613415616217